두 회장의 '좌충우돌'…파벌싸움·재정비리로 신뢰 추락

5·18단체 파행 언제까지 〈상〉

특전사단체와 섣부른 화해
광주시민사회와 대립각
바지사장·비선실세 논란까지
공법 3단체중 2단체 회장 공석
3월초 발표 보훈부 감사결과 촉각

지난해 2월 19일 (사)특전사동지회와 함께 추진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선언식'에서 촉발된 5·18공법단체 파행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5월 공법 3단체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비리로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나 자정능력 부재로 사실상 사태를 장기 방치하고 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3월 2일 각각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일봉 전 5·18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전 5·18 공로자회장은 지난해 각각 직무정지·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두 단체는 회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두 회장은 직권을 남용해 이사회, 회원들과 의견 수렴 없이 지난 2월 19일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는 점,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회원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 등이 징계·해임 사유로 꼽혔다.

두 회장은 5·18교육관 민간위탁 등과 관련해 광주시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공동선언식에 반대하는 오월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등 광주 시민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9월에는 두 회장이 "우리는 바지사장이었다"며 5·18부상자회 전 간부직원 A(63)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고소·고발전을 벌이기도 했다. A씨가 두 단체의 모든 공적 결정에 개입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며 이사진 등을 자기 사람으로 심거나 회유하는 등 공법단체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에게 회장으로서 각종 의사결정권까지 빼앗겼다는 등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법단체의 신뢰를 추락시킨 데 이어 공로자회는 내부 감사에서 A씨로 인한 공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비리가 발생했다는 지적까지 터져 나왔다.

이는 두 회장과 A씨 간 파벌 싸움으로 번졌다. 급기야 5·18부상자회 이사회 측에서 황 전 회장 관계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겠다며 용역 경비원을 고용해 5·18부상자회 회원들 간 고성과 몸싸움을 하다 부상당하는 사례도 잇따라 불거졌다.

결국 국가보훈부 차원에서의 감사로도 이어졌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부터 수행해 온 공법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오는 3월 초까지 결재 및 공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보훈부 측에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내부 비리가 확인돼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혀왔다는 설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2~2023년 3단체가 받은 보조금 규모는 총 34억 1880만원에 달한다.

5·18부상자회는 지난해 9월 '유령 대의원' 문제로 최근 대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는 등 홍역을 앓기도 했다.

법원이 5·18부상자회의 유권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된 채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5·18부상자회는 지난해 10월 총 회원수를 2175명으로 확정해 대의원 수 174명을 선출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옛 5·18부상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옛 사단법인 회원명부와 새로 가입한 회원명부를 짜깁기해 2175명으로 회원 수를 늘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제 회원 수는 총 1915명, 적정 대의원 수는 153명이라고 판시했다.

광주지역 사회에서는 5월 두 단체의 파행 장기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열악한 5월 단체 재정을 개선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던 공법단체 설립 취지는 간 데 없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파벌 싸움 등 내홍과 내부 비리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두 단체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도로 낙하물 사고 예방 화물차 점검 최근 화물차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각화동 화물차고지에서 차량 바퀴 마모나 결합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피의자에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경찰 법정 구속

광주경찰청 경위 1년6월 징역형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리고 변호사를 알선한 현직 경찰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구속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 사무장 B(58)씨와 전직 경찰 C(54)씨에게는 각각 징역 5월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에게는 추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었던 A경위는 전직 경찰과 법조 관계자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경위는 압수 수색 정보를 사전에 자신이 수사하는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체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사건을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의 고교 선배인 B씨는 사건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C씨는 후배인 A씨가 수사하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경위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압수한 A경위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찾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다.

별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을 다른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친분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숙박업소서 마약 취해 난동부린 20대 체포

숙박 업소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린 20대가 체포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26일 A(2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나체 상태로 숙박업소 TV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가 객실이 소란스럽자 문을 열고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에 취해 5층 객실에서 창문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기도 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추가로 A씨의 객실 내에서는 마약 투약 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2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약 경위,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주사기 등에서 발견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새로 산 오토바이 자랑하려다…무면허 운전 고교생 붙잡혀

아버지에게 선물받은 오토바이를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NC백화점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한 A(16)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6일 오후 8시께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오토바이 차주는 A군의 아버지로, A군은 최근 아버지로부터 5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선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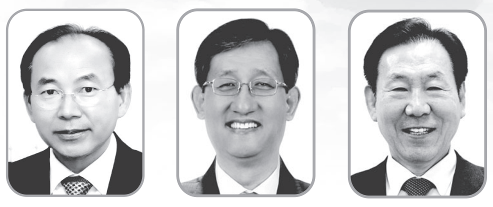
A군은 오는 28일 원동기면허시험을 예약해 두었으나, 그에 앞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는 차주인 A군 아버지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번호판 미부착)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1954~2024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 장 김경윤 박사

정시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24. 2. 22(목) ~ 28(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
총계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4. 2. 22(목) ~ 28(수) · 전형일 : 2024. 2. 28(수) 18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계를 향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